

본문 : 마태복음 14 장 22-27

제목 :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1. 오병이어의 표적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오펜릿지 교회에서 개최된 Global Leadership Summit 에 참석했습니다. 첫 강사님께서 호감(likability)이 가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많은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에 앞서 서로 아이 컨택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I like you."라고 인사해 볼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예수님도 한때는 오빠부대를 몰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가장 인기가 많았던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빵을 해결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왕으로 모시려 열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험의 예가 공산주의이죠. 빵만 해결해 준다면 자유를 억제하는 독재도 감수하겠다는 실험이 공산주의였습니다. 교회내에서도 먹을 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큰 권세를 갖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주방 권세"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교회마다 주일에 밥 먹는 것이 큰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방을 책임지는 여성 성도들은 큰 영향력을 갖기에 주방 권세란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도 주방 깊숙이 방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 온갖 맛난 것들을 대접 받고, 방도 뜨끈뜨끈 이보다 더 좋은 아지트는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정만 5 천명을 먹이셨으니 사람들이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 장 15 절에서는 오병이어 표적 이후의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은 로마제국과 헤롯 체제에 반기를 드는 혁명의 앞잡이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로마제국과 헤롯 제국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빵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런 열기를 갈아 앗히시고자 예수님은 산으로 피신하십니다. 이 때 가장 들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이신 예수님 때문에 한껏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군중들이 일으킨 열광의 파도에 제자들의 마음도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열광의 파도에 숨겨진 음모에 위험을 느끼고 피하십니다.

2. 빵과 물고기를 먹는 다는 것

오병이어 표적의 속뜻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왜 이 표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오병이어는 믿음과 순종이 예수 따름의 원동력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보잘 것 없는 물고기와 떡 몇 조각이지만 그것을 순종함으로 드릴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병이어는 순종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에너지임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왜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리터지를 반복했습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나도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삶과 피를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눠 주셨듯이 나의 삶을 다른 이에게 선물로 주는 삶을 나도 모방하며 살겠다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먹는 것을 해결하신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기독교는 예수 정신으로 가득 찬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실천으로 가득 채우는 기독교가 되겠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의 의미에는 관심이 없었고 표적 자체에 열광했습니다. 표적의 부스러기를 먹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사이비 종교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순종과 실천 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드는 자들은 예수님을 우상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순종하면 할 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심오한 진리가 파고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후광을 누려볼까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달뜩 열기를 쿨 다운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련하신 성경학교 스테이션이 바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었습니다.

3. 풍랑에 정체된 배

요한복음에 의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은 디베라입니다. 디베라에서 제자들은 이제 퇴근 모드입니다. 그들의 베이스 캠프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해질 녘에 산에 계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 보다 전에 수상 택시를 이용해 바다를 가로질러 가버나움으로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디베라가 시계방향 9 시라면 가버나움은 시계방향 12 시에 위치합니다. 약 10 마일 정도의 거리이고 바람만 없으면 한 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매우 가까운 바닷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려고 기다렸다고 묘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개선행진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오후 6 시 경에 제자들의 배는

출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시간이 새벽 4 시경이니까 제자들은 바다에서 10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에는 한 시간이면 충분했지만, 10 시간 동안 간 거리는 고작 3-4 마일의 거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북쪽의 혈몬산과 서쪽의 요르단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몰아치면 큰 파도가 일곤 합니다. 제자들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북동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데, 혈몬산과 요르단 계곡쪽에서 불어오는 북동풍이 그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저수지에 작은 고깃배가 있어서 친구들 몇 명과 노를 저으며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이 불어나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것과 비교가 안 되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목포에서 제주도로 페리를 타고 수학여행을 간 적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 닥쳐 저희는 제주도에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강제로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큰 배도 바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더 무서운 것을 보게 됩니다.

4. 두려움의 정체

바다 한 가운데서 10 시간의 사투에 제자들은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놓인 삶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내가 없는 자처럼 되는 것이죠. 내 존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대접받는 것이 죽음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갑자기 실직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연애가 성사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예후입니다. 이른 새벽이 되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 물 위를 걸어오는 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유령으로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법한 세팅입니다. 사람이라면 물 위를 걸을 수 없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더 강력한 리듬과 빠른 템포로 그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 한복판으로 그렇게 걸어오셨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따뜻하게 말을 거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죽음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두려움을 잘 분별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 두려움은 피조물인 인간이 겪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한계를 느낄 때 두려움을 갖습니다. 수퍼맨은 높은 낭떠러지에서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유한하기에 바다 한가운데서 불어오는 광풍에 두려워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이 갖는 한계입니다. 두번째 두려움은 죄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도망가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거나 앓을까 두려워 했습니다. 범죄자들에게는 밝은 태양도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왜냐면 폭로되고 노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죠. 죄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세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이 기획하신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더욱 끈끈하게 결속시키려고 의도하신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들떠 있을 때 우리를 쿨 다운 시키시려고 보내시는 두려움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제자들의 경우는 오병이어 기적의 흥분을 갈아 앗히는 역할을 했죠. 또한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풍랑과 바람에서 눈을 떼어 내어 주님에게만 집중하게 하시려고 두려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여기는 순간 제자들의 눈에는 더이상 풍랑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큰 두려움에 작은 두려움은 압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따라가고 표적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우상숭배하려 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획하시고 조장하신 두려움에는 끝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이 두려움의 기능이 다 하면 그 두려움을 끝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마주하는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시키기 위해 보내신 두려움입니다. 교육의 기능이 다 할 때 그 두려움은 끝이 날 것입니다.

5. 영적 감수성

여러분 가운데는 10 시간 내내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밤새 노를 저었지만 소원의 항구까지 가지 못하는 사태가 누군가에게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만 꼬여 가는 것이죠. 이럴 때는 한 번 잠잠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닌가? 물론 이 상황이 나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니 잘 분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우리의 영적 감수성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인생이 제자리 걸음이고, 스텍됐다고 느껴질 때 그 때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감수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삶에 최근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그 때 오히려 영적인 감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기적의 맛이 너무 좋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들면 큰 코 닥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표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저의 가정은 두 번째 자동차를 놓고 주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 주님께 기도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설교를 하며 더욱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약 1:17)” 이 말씀대로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고도 완전한 선물을 주시기 기뻐하시는 아버지인데, 이 말씀이 이뤄지는 지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지인 중에 미션 서포트 하시는 분이 저희에게 자동차를 선물하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야 말로 하늘에서 선물이 뚝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좋은 것과 완전한 선물을 준다고 하지 않았니? 마침 오늘이 니가 미네소타에 온지 만 4년이 채워진 날이지? 그동안 나만 믿고 잘 따라왔다고 주는 나의 선물이야”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아버지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 주신 분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피 말리는 경쟁사회, 성과사회, 소비사회이지만 어떤 이들은 이 욕망의 이야기를 거스르는 기적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표적이 아닌 순종을 따라가는 이들을 통해 주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은 쌓여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일이 잘 풀려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초점이 흐려지지는 않는 지 돌아보게 됩니다. 선물에 눈이 팔려 선물을 주는 이의 순종과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놓쳐서는 안되니까요.

6.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가요? 제자들의 배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오르자 마자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셔야 합니다. 우리 직장의 배, 가정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도 예수님이 내 배에 오른 효과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배에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항로가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도가 없는 이 상황도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 두려움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걸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없더라도 이 이야기는 아름답게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빼고

마무리했죠.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를 추가로 들려주고 싶어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그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을 때 물위를 걸었지만, 풍랑에 맞춰졌을 때 바다에 빠진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분명한 차이를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번 리더십 세미나에서 한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We want certainty first. God wants trust". 우리는 뭔가 확실해야 발을 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기를 바라십니다. 삶에 진전이 없어서 답답해 하고, 온갖 시련과 풍파로 상할대로 상해 있는 마음을 가진 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의 배에는 예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나요? 주님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발걸음을 내딛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에게는 순종할 마음이 있나요? 폭풍속에서 우리의 영적 감수성은 더욱 민감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온전히 주님께만 맞춰야 합니다.

인생의 거대한 풍랑 앞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 시편 46 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2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3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폭풍 속에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 위에 올라와 계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5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새벽에 주님을 찾아 보십시오. 내 하루가 시작되는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할 지 모르겠으면 성서일과나 성서일과와 함께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을 가지고 읽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끔 광풍과 높은 풍랑이 불어 닥칩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했던 미국의 한 등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Storms are always temporary. We cannot control the environment. We can control our reaction." 폭풍은 시도 때도 없이 불어

을 수 있지만, 폭풍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바람과 파도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풍랑과 파도를 돌파하셔서 내 배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사무치고 애타게 예수님을 찾는 마음은 주님이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께 더 견고히 달라 붙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획하시고 조성하신 두려움의 파도 가운데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경험으로 두려움의 파도와 두려움의 바람을 극복한 간증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